

대설



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물품을 준비합니다.



집 근처의 길가와 지붕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합니다.



개인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차량 운행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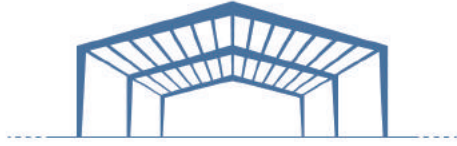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눈이 오기 전에 보온덮개와 차광막을 치웁니다.

지붕 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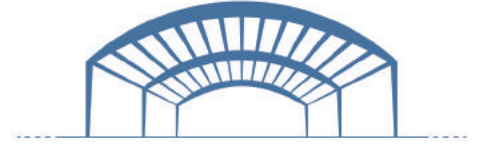
『내부 기둥이 없는 조립식 건축물』은 법적으로 지붕제설을 해야하는 시설입니다.

대상 시설

PEB
·
트러스
구조



아치
·
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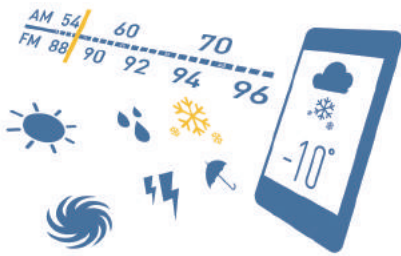


공장, 창고, 체육관, 축사, 온실 등

비닐하우스, 체육관, 시장아케이드 등

눈 내리기 전

1.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인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지붕제설을 준비한다.



눈 내린 후 제설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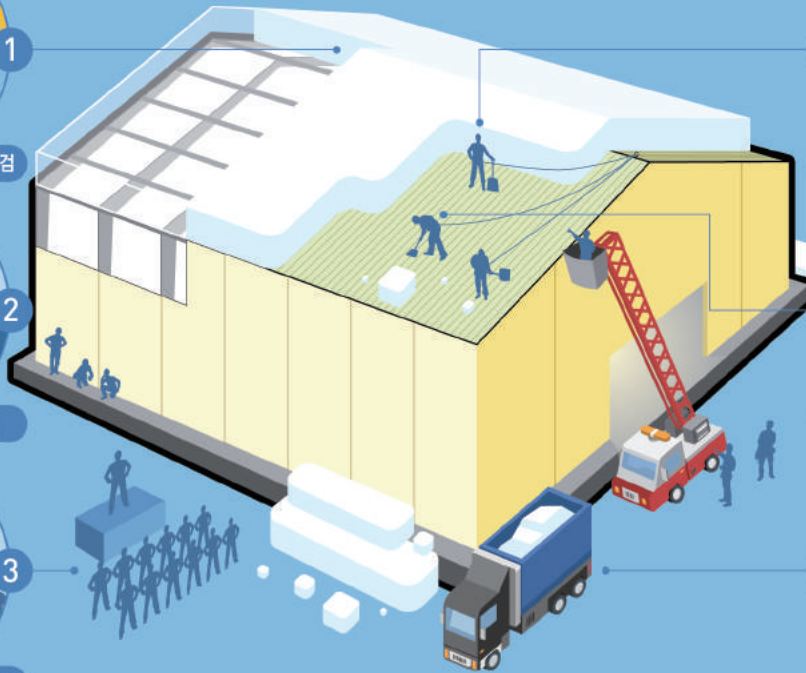
강설상황·지붕 눈쌓임상태 점검



일몰 이전 작업(야간시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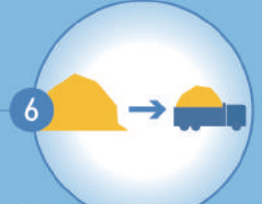
제설 인력 점검 및 준비체조



안전 장비 착용



제설 작업 실시



제설 된 눈 이동

※ 자세한 사항은 뒷면에 있는 지붕제설 세부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조치

1. 건물피해를 점검한다.



2. 피해시설을 복구한다.



3. 다음대설을 준비한다.



지붕 제설

필요성

- 지붕에 눈이 많이 쌓이면 건물 붕괴 위험이 높아집니다.
- 건물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을 제설하는 것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주 또는 건물 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전문진단

- 👉 건축물 구조나 설계변경, 추가설치 등으로 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적설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안전성을 점검한다.
- 👉 건축물과 지붕의 손상·균열·부식 정도, 지붕 배수구·흡의 막힘 여부를 점검해서 보수·보강하거나 교체한다.
- 👉 적절한 제설·안전장비와 필요한 제설인력을 확보하고, 제설·안전장비의 작동여부를 점검한 후제설행동을 숙지한다.
- 👉 제설업무를 자체 수행할 것인지, 전문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결정해서 사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비상연락망을구축한다.

눈내리기전

1. 기상정보를 알아본다.

- 👉 기상청 대설특보와 동네 예보를 청취한다.
- 👉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실내행사를 취소한다.
- 👉 행사취소가 어려우면 대피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 눈이 쌓이면 지붕이 견딜수 있는지 확인한다.
- 👉 지붕과 건물의 손상·균열·부식을점검한다.
- 👉 창문과 문이 제대로 열리는지, 대피로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3. 지붕제설을 준비한다.

- 👉 안전한 제설을 위한 제설계획을 수립한다.
- 👉 지붕제설장비(의복·신발·삼 등)를 마련한다.
- 👉 **건물의 안전과 제설을 위해 전문업체의 검토와 점검을 받는다.**

눈내린후 제설단계

제설작업 전 준비체조

- 눈 치우기전 5~10분간 관절을 풀고 혈액순환을 위한 준비체조를 한다.
- 등·팔·어깨·다리를 스트레칭 한다.



제설 안전 수칙

1. 노인, 다친 사람, 고혈압·심장마비 위험이 있는 사람은 제설작업에서 제외한다.
2. 작업전 커피·흡연·폭식을 피하며 옷을 따뜻하게 입고,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3. 적절한 신발과 안전로프를 착용한 후 사다리를 설치하고, 발밑을 항상 확인한다.
4. 지붕하중을 대칭적으로 유지하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해 제설한다.

적설 유형별 제설 수칙

| 눈 밀도 (kg/m ³) | 적설유형별 지붕제설요령 |
|---------------------------|--------------------|
| 48.06 건식눈 | 추위 조심하고 휴식 취할 것 |
| 336.39 젖은 눈 | 자주 쉬고 삼을 가득 안 채움 |
| 480.55 단단한 눈 | 자주 쉬고 무거운 삼은 도움 받음 |
| 913.05 얼음 | 얼음은 부수고 무거우면 도움 받음 |

올바른 삼질요령

1. 발 폭을 넓게 하고 삼을 앞발 근처에 둬
2. 무게중심을 앞에 놓고 다리를 사용 삼을 밀어냄
3. 체중을 뒤에 두고 무게중심을 몸에 유지
4. 던지는 방향으로 다리를 이동함

제설장비

제설삼

- 무게는 1.5kg을 넘지 않고, 손잡이가 사용자의 가슴에 오는 것을 선택한다.
- D형태의 손잡이를 선택하며 삼에 가득 채우지 않고, 던지기보다는 민다.
- 연속 삼질의 권장속도는 분당 약 15회이며 매 15분마다 휴식시간을 가진다.

제설밀대

- 손잡이는 팔을 90°로 구부리고 위를 향하게 잡아 목과 등으로 밀대를 민다.

결빙분쇄봉

- 얼음을 깨는 도구로 팔과 어깨에 반복되는 강력한 수축과 진동을 야기한다.